

# KOCHAM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  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11월 13일(목)

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, 고용상황 개선될 것으로 예상
- 2) 미 기업, 해외 보유 현금 2조달러 돌파

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일본, 첫 국가 브랜드 1위
- 2) 중국, 고정자산 투자 4개월 연속 증가세 둔화

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유튜브, 다음주 유료 디지털 음원 서비스 첫선

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### 1)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, 고용상황 개선될 것으로 예상

- 지난 13일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9만건을 기록, 직전주 대비 1만2,000건 증가했다고 발표
  -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28만건을 상회, 지난 9월20일 이후 최대치
  - 실업보험 연속 수급 신청자수 역시 234만8,000건에서 239만2,000건으로 증가
- 반면, 이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최근 기업들의 매출 증가에 따라 기업들이 더 많은 인력을 감당하고 있다고 분석, 또한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고용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
- 한편 지난 10월 중 미국의 신규 고용자수는 21만4,000명이 추가, 실업률은 5.8%로 하락해 2008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

### 2) 미 기업, 해외 보유 현금 2조달러 돌파

- 지난 12일 CNBC는 미국 기업의 해외 자금 규모가 2조1,0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
  - 이는 지난 12년 사이 6배 증가한 결과로 미국내 기업들의 현금 1조9,000억 달러도 초과하는 결과
- 또한 미국 법인세 과세(35%)를 피해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자금은 규모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
-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한 만큼 법인세 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

- 이는 해외에 쌓인 자금을 미국으로 유입케 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
- o 한편, CNBC는 기업들이 투자 대신 현금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열중하는 상황이 오히려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

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### 1) 일본, 첫 국가 브랜드 1위

- o 지난 12일 포브스는 컨설팅 회사인 퓨처 브랜드의 연례 국가 브랜드 순위에서 일본이 사상 처음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
  - 일본은 네 가지 평가 부문 중 기술과 혁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
- o 2위는 스위스, 이어 독일(3위) 스웨덴(4위) 캐나다(5위) 노르웨이(6위) 미국(7위) 호주(8위) 덴마크(9위) 오스트리아(10위) 등이 10위권을 기록
- o 유럽 국가들의 순위가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싱가포르가 14위, 한국도 20위로 순위에 포함
- o 전문가들은 순위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사람들이 그 나라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싶고, 주거하거나 학습을 하기 원하는 장소일수록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

## 2) 중국, 고정자산 투자 4개월 연속 증가세 둔화

- 지난 13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~10월 중 고정자산 투자 누적액이 전년동기대비 15.9% 증가했다고 발표
  - 이는 1~9월 중 누적 증가율대비 0.2%p 하락한 결과, 1~10월 중 고정자산 투자 누적액은 블룸버그 집계 시장 예상치를 0.1%p 하회
- 고정자산 투자 누적액 증가율은 6월 중 17.3%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전월 수준을 하회
  - 10월 중에는 고정자산 투자 뿐만 아니라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율도 하락
- 한편, 중국의 소매판매는 5월 전년동기대비 12.5% 증가한 이후 10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

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### 1) 유튜브, 다음주 유료 디지털 음원 서비스 첫선

- 지난 12일 유튜브는 다음주부터 「유튜브 뮤직 키(YouTube Music Key)」라는 유료 음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
  - 처음 6개월간은 일부 이용자에 한해 무료 '베타' 버전 시험 가능, 이후에는 월간 9.99달러를 지불 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
- FT는 전날 유튜브가 최근 음악서비스 유료화를 위해 저예산 독립 음반회사 (인디레이블) 수천 곳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
- 한편, 전문가들은 유튜브 이용자가 월간 10억명에 달하는 만큼 유튜브가 1년 내 유료서비스로 5억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